

사랑하는 뱀엘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와 염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전례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결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전염병과 질병은 언제나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사회의 고난을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했고,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사회와의 자가격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더욱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교회가 앞장 서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어려운 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3월 12일 메릴랜드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공무원과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기관과 종교 기관의 모임 연기와 취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뱀엘교회 당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연로한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의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주중 및 토요일 새벽과 수요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주일예배(주일 오전 8시 30분과 11시 30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을 이해하시고, 온라인 예배 지침에 따라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금요일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매주 단위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 교회 홈페이지와 연락망을 통해서 즉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이 사태를 잘 대처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환우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보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속이 오길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담임목사 백신종 올림

David J. Baer

